

4 April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창작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화로 물들이다 (~2일) 제17회 참진주 수채화회전(~2일) | 2 | 3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아름다운 우리 가락 | 5 | 6 |
| 7 | 8 | 9 | 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1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상철 흑백사진 -7080 홀러간 발자취 (~16일)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5회 진주미술 협회전(~23일) 2024 진주미협 기획전(~23일) | 20 |
| 21 | 22 |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제81회 정기연주회 | 24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온 스크린 정경화&케빈 케너 듀오 콘서트 |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지현 개인전 (~28일) |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타스틱 드럼 고향의 심장을 두드리다 |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GREATEST: 전율 정동하x소향 - 진주 | 29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렉처콘서트 I 판소리 - 소리내력 | | | | |

5 May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창작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1 | 2 | 3 | 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립교향악단 제106회 정기연주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회 손점섭 유화개인전(~7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알사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알사탕 |
| 5 | 6 | 7 | 8 | 9 | 10 | 1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날 뮤지컬 알사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공휴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온 스크린 연극 피노키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온 스크린 연극 달래이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회 삼현문화제 (~14일)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님 오신 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제36회 경상남도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21일) 석초 김갑수 작품전(~2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렉처콘서트 II 산조 - 허튼가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회 진주야외 사생회경기전 (28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극단 스카팽 경남예술고등학교 제34회 미술과 정기미전&만화 애니메이션과 학생작품전(~28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극단 스카팽 |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혜 소년합창단 제18회 경남환경 미술협회전 및 초대작가전 (~6월 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회 아름다운 만남전(~6월 4일) | |

6 June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창작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 | | | | | |
|--|----|---|--|--|--|---|
| 2 | 3 | 4 | 5 | 6 현충일 | 7 | 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thers Forever 진주아버지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카우보이 블루스 • 제25회 아름다운 여행전(~11일) • 제11회 진주 빛 이야기 사진 전시회(~11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루살렘 현악4중주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개천미술대상전 초대작가전(~18일) |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제82회 정기연주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렉처콘서트 Ⅲ 가곡 - 인류의 유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회 대한민국 충효미술대전 (~25일) • 제39회 대한민국 청소년 가훈대전 (~25일) |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회 혁신에 예술을 더하다 진주재즈콘서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온 스크린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 KBS교향악단 • 진주사생회 제20회전 '길 따라 세월 따라' (~7월 2일) • YOU&I-one and all (~7월 1일) • 강경선·강상중·강윤자 3인 전시(~7월 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시립교향악단 제107회 정기연주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 색소폰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연주회 |
| 30 | | | | | | |

* 문화노트에 게재된 모든 공연 및 전시의 일정·출연진·프로그램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 기념 아름다운 우리 가락

4. 4.(목) 19:30

R석 2만원
S석 1만원

8세 이상

4월, 따뜻한 봄바람 같은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 기념 <아름다운 우리 가락>은 부산과 경남 예술단 교류로 이뤄진 특별한 무대이다. 이날 지휘에는 이동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 나서며, 국악인 박성희와 정선희, 대금연주자 이건설, 소프라노 한아름, 바리톤 박경중, 사물놀이패 사물광대가 함께한다. 1984년 5월 23일에 창단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전통 음악 계승 발전 및 창작음악을 개발하여 폭넓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 단체이다. 전문연주자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정기, 특별, 기획연주회와 덴마크, 터키,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호주 등 국내외 다양한 연주회에서 우리 음악을 수준 높게 소화해 내고 있다. 현재 예술감독 이동훈은 열정적이고 참신한 레퍼토리로 우리 음악의 예술적 향상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우리 음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한국 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그리고 생활화를 추진하여 국내외에 한국 전통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프로그램

봄을 위한 서곡 '꿈꾸는 나무'

남도민요와 국악관현악 '성주풀이, 액맥이타령, 진도아리랑'

대금협주곡 '바람, 숲'

성악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라르고(Largo), 우나 보이스(Una voce), 지금 이 순간'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3악장'



지휘 이동훈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By Special Arrangement with ENZO PRODUCTS

5. 17.(금) 19:30

5. 18.(토) 14:00, 19:00

5. 19.(일) 14:00

주최 경남문화예술회관
주관 공연마루
제작 (주)마스트인터내셔널

V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8세 이상



전 세계가 사랑한 명작,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경남도민을 만난다. 원작 소설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31년 발표한 불후의 걸작이다. 꿈추이자 추한 외모를 지닌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 콰지모도와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세속적 욕망에 휩싸여 끝내 파멸하는 사제(司祭)의 뒤틀린 사랑을 바탕으로 15세기 파리의 인간군상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는 <레미제라블>과 더불어 빅토르 위고의 대표적인 동시에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영화화되고, 연극 및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지며, 수 세기를 아우르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당시 혼란한 사회상과 부당한 형벌제도, 이방인들의 소외된 삶을 묘사하고 권력의 상징인 노트르담 대성당과 대도시 파리를 풍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일으킨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뮤지컬이 구사할 수 있는 장치와 상상력, 기술적 구현을 집약해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명작을 무대 위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펼쳐낸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 세트(길이 20m, 높이 10m)와 100kg이 넘는 대형 종들,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가고일 석상 등 30톤이 넘는 거대하고 웅장한 무대로 관객을 압도한다. 특히, 막이 오르고 등장하는 가고일 조각상 벽기둥은 ‘콰지모도’의 소외감과 뒤틀린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에스메랄다’를 보고 처음으로 욕정을 느낀 주교 ‘프롤로’의 고통스럽고 깊은 고뇌와 갈등을 상징하기도 하는 등 상징성을 담은 무대 장치들은 마치 예술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5. 24.(금) 19:30 / 5. 25.(토) 15:00

R석 3만원
S석 2만원

8세 이상

2019년 국립극단에서 제작 초연된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 작품 <스카팽>이 온다. 시의성 있는 각색과 독특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연출로 평단과 관객의 압도적 호평을 받으며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9 올해의 공연 베스트 7', 제56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등을 수상한 명작이다.

<스카팽>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몰리에르의 <스카팽의 간계 Les Fourberies de Scapin>를 원작으로 한다. <스카팽>은 이탈리아 희극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에 등장하는 익살스러운 하인 '스카피노'에서 유래한 캐릭터 '스카팽'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짓궂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하인 '스카팽'은 두 집안의 정략결혼에 맞서 두 자녀들이 진짜 사랑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며 번뜩이는 재치와 유쾌한 조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이와 더불어 재기발랄한 '스카팽'의 모략 속에 위선과 타락의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이번 공연의 특별한 점은 작품의 작가 몰리에르가 무대에 등장해 극을 이끌어가며 관객과 호흡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극의 대가 임도완 연출 특유의 움직임과 노래, 음악이 어우러져 극 중 캐릭터들의 통통 튀는 매력을 더욱 빛내준다. 무대 위에서 직접 펼쳐지는 라이브 연주도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다.



민헨 소년 합창단

5. 30.(목) 19:30

V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6세 이상

청명하고 맑은 목소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민헨 소년 합창단이 경남도민을 만난다. 2014년 민헨시는 음악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소년 합창단을 만들고자, 당시 톨처 소년 합창단의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있던 랄프 루드비그를 영입했다. 그의 섬세한 지휘와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 민헨시는 소년 합창단 창립을 맡겼다. 그는 민헨 소년합창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단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합창단을 눈부시게 성장시켰다. 민헨 소년 합창단은 현재 독일 문화의 중심인 바이에른 주에서 최고 수준의 합창단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입증하듯이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과 민헨 필하모닉 등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수많은 유럽의 유명 극장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페라에서 뮤지컬, 가요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함께 명품 보이스로 선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 카르미나 부라나 ‘오! 운명의 여신이여’
- Adiemus
- 고양이 이중창
- 마술피리 ‘찬란한 아침이 곧 밝아 오리니’
- 독일 포크송 메들리
 -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 노랑색 마차를 타고
 - 생각은 자유
 - 아버지는 방랑자
 - 들어보아요, 밖에서 무엇이 오는지
 - 숲과 들판에서
- The end of the world
- The rose
- Earth song
- You raise me up
- 낙원의 정복 ‘The conquest of paradise’
- Money, money, money
- Bohemian rhapsody
- 라이언킹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주제곡
-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Double trouble’
- 폼페이 주제곡
- 알라딘 ‘Prince Ali’



Jerusalem Quartet

예루살렘 현악4중주단

6. 11.(화) 19:30

V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8세 이상

세계 주요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루살렘 현악4중주단이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명문 레코드사인 아르모니아 문디의 전속 아티스트로, 에코 클래식 상, BBC뮤직 매거진 상, 그라모폰 에디터 초이스 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현악4중주단이다. 제1바이올린 알렉산더 파블로프스키(Alexander Pavlovsky), 제2바이올린 세르게이 브레슬러(Sergei Bresler), 비올라 오리 캄(Ori Kam), 첼로 키릴 즐로트니코프(Kyryl Zlotnikov)로 구성된 예루살렘 현악4중주단은 2005년부터 클래식 음악 레이블 아르모니아 문디를 통해 16개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상을 받았다. 폭넓은 레퍼토리와 놀라운 표현의 깊이를 끌어내며, 따스하고 풍부한 소리로 고음과 저음 사이의 균형을 이뤄낸다.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은 물론, 그들의 음악적 해석과 표현력은 많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프로그램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현악 4중주 제1번 마단조 '나의 생애로부터'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제11번 바단조, 작품번호 122

루트비히 판 베토벤 현악 4중주 제8번 마단조, 작품번호 59-2 '라주모프스키'



대형스크린으로 만나는

정경화&케빈 케너 듀오 콘서트

4. 25.(목) 19:30

후원 예술의전당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8세 이상

Duo Concert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정경화&케빈 케너 듀오 콘서트>를 대형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 1부에는 '비의 노래 소나타'로 불리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장조'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c단조'를 만날 수 있다. 2부에는 여러 번의 명 연주를 남겼던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가 연주되어 여전히 레전드 연주자임을 유감없이 과시한다. 특히, 영혼의 동반자로 일컬어질 정도로 딱 맞는 호흡을 자랑한 두 명연주자의 연륜 넘치는 무대는 클래식 관객들의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는 무대다.

SAC ON SCREEN

예술의전당이 제작하는 공연 영상 콘텐츠인 SAC ON SCREEN(삭 온 스크린)은 UHD 고화질 영상을 통해 아티스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생생함과 10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입체 서라운드 음향을 통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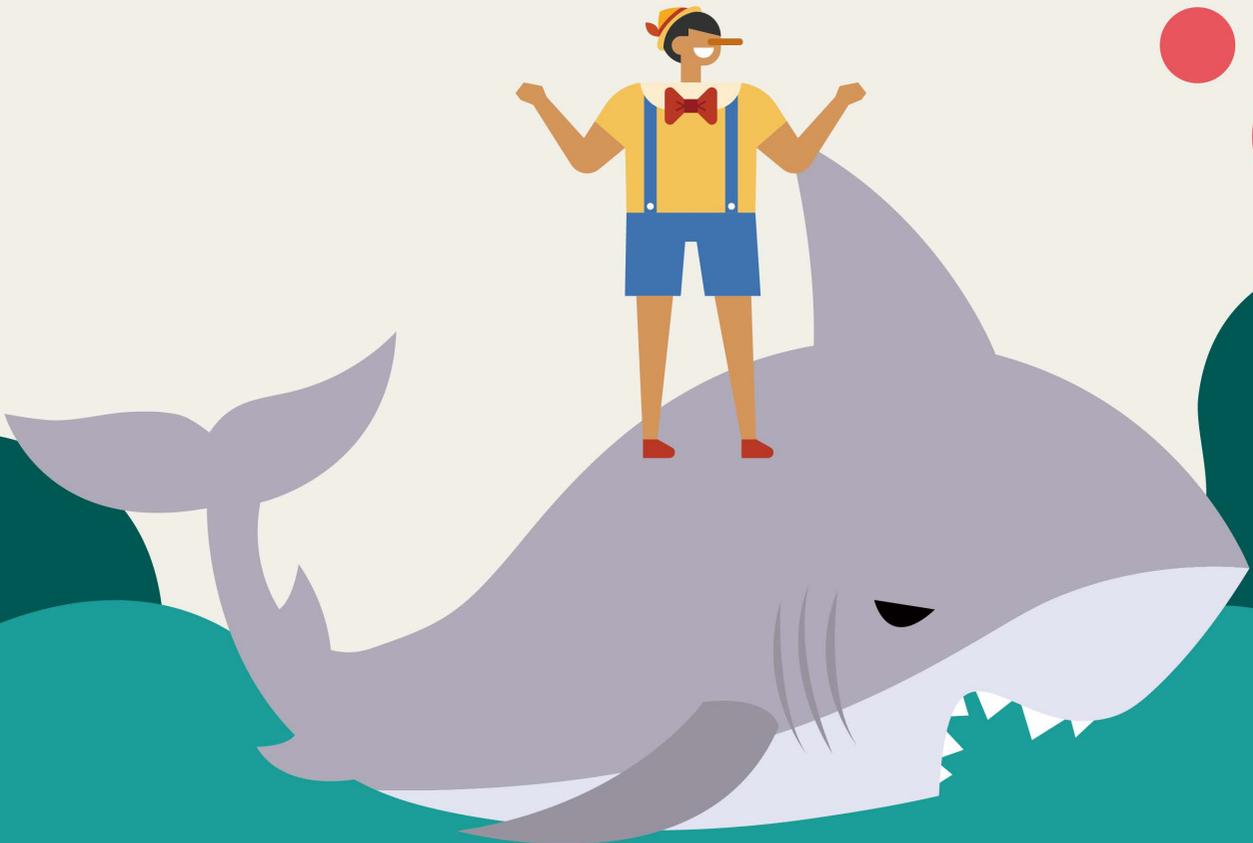
5. 8.(수) 19:30

후원 예술의전당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6세 이상

일본 인형극단 무수비좌의 <피노키오>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모험과 성장 스토리를 다양한 형식의 인형들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표현한다. 인형극 <피노키오>는 생동감 넘치는 인형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풍부한 감정 표현이 빛을 발하는 인형극이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이야기로 잘 알려진 카를로 콜로디의 원작 <피노키오>의 철학적 대사와 캐릭터들을 최대한 살려 각색하였으며, 인형극단 무수비좌의 일본 단원 8명이 한국어 대사와 노래를 연습해 신나는 노래와 춤, 화려한 마임과 서커스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일본 인형극단 무수비좌(1967~)는 나고야에 있는 극단으로, 50년 역사를 지닌 일본 최고의 인형극단 중 하나이다. ‘무수비’는 매듭이라는 뜻으로 ‘사람과 사람’, ‘어른과 어린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는 의미이다. 42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인형극단 무수비좌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관객 대상에 맞춰 다양한 공연을 제작해 왔으며, 연간 1,200회 이상 공연할 정도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SAC ON SCREEN

예술의전당이 제작하는 공연 영상 콘텐츠인 SAC ON SCREEN(삭 온 스크린)은 UHD 고화질 영상을 통해 아티스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생생함과 10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입체 사라운드 음향을 통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다.

대형스크린으로 만나는 연극 달래이야기

5. 9.(목) 19:30

후원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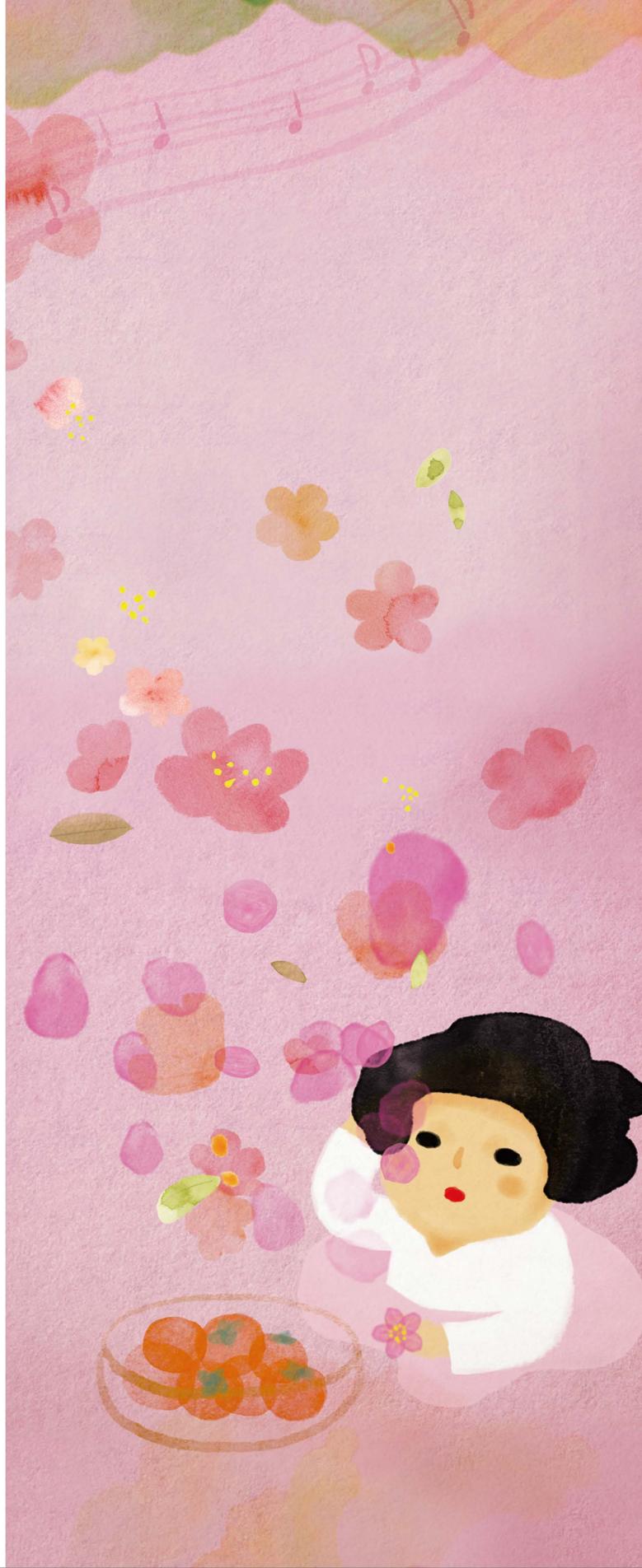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8세 이상

예술무대 산의 <달래이야기>는 가족과 함께했던 소박한 일상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달래네 세 식구의 이야기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어린 시절의 추억, 행복하고 따스한 하루하루의 작은 즐거움들이 피할 수 없는 힘든 시간에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2009년 스페인 티티리자이 세계인형극제 최고 작품상과 2012 중국 세계인형극총회(UNIMA) 최고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 대표연극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 이후 프랑스, 스페인, 체코, 브라질, 이란, 터키, 남아공,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 81개 도시에 초청받아 공연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작품이다. 배우와 인형이 함께 등장하여 연기하는 독특한 형태에 오브제, 연극, 마임, 한국무용, 그림자극, 3D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버벌 인형극으로, 서정적인 춤과 함축적인 몸짓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SAC ON SCREEN

예술의전당이 제작하는 공연 영상 콘텐츠인 SAC ON SCREEN(삭 온 스크린)은 UHD 고화질 영상을 통해 아티스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생생함과 10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입체 서라운드 음향을 통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다.



대형스크린으로 만나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 KBS교향악단

6. 27.(목) 19:30

후원 예술의전당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8세 이상

독일 출신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이끄는 KBS교향악단이 화합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아 '말러 교향곡 제2번 c단조 부활'을 연주한다. 7년간의 작곡기간 내내 삶과 죽음에 대한 말러의 고뇌가 녹아 있는 이 곡은 말러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다. 1악장은 죽음, 2악장은 희망에 찬 청춘, 3악장은 아름다웠던 현실, 4악장은 영적인 생활 그리고 5악장은 최후의 심판과 부활을 노래한다. 말러의 '부활'은 연주시간 90분의 대작에,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합창으로 구성된 장엄한 교향곡으로 웅장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압도적이다. 4악장과 5악장에는 소프라노 이명주와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독창을 선보인다.



© Luca Piva

SAC ON SCREEN

예술의전당이 제작하는 공연 영상 콘텐츠인 SAC ON SCREEN(삭 온 스크린)은 HD 고화질 영상을 통해 아티스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생생함과 10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일체 서라운드 음향을 통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다.